

직장인들 “시원한 커피숍서 회의하자”

■ 폭염 탈출 ‘新 풍속도’

‘찜통 관공서’ 민원인들 항의에 공무원 땀만 ‘뿔뿔’

“밀린 일하고 야근수당 받자” 올빼미 직장인 늘어

연일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과 민원인의 불편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또 직장인들 사이에선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퇴근시간을 늦추는 올빼미 귀가족도 생겨나고 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깥 출입을 자제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구내식당 등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열을 내어선 곳에 대해서는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전력 낭비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폭염 속에 동료 직원 또는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더운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핀잔에도 어느새 면역을 생겼다. 현재 광주시를 비롯한 각 구청은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오후 2시30분~5시까지 냉방기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20분께인 북구청 내부 전체가 정전돼 컴퓨터·냉방기기 사용이 전면 중단됐다. 찜통 더위에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일을 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정전사태는 이날 오후 5시까지 모두 원상 복구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20분께인 북구청 내부 전체가 정전돼 컴퓨터·냉방기기 사용이 전면 중단됐다. 찜통 더위에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일을 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정전사태는 이날 오후 5시까지 모두 원상 복구됐다.

하고 야근수당도 받을 수 있어 아예 야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모 보험회사에 다니는 정모(36)씨는 요즘 야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다. 홀로 사는 정씨는 집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 제시간에 퇴근해도 무더위에 더 지치기만 하기 때문이다.

◇구내식당·커피숍 인기=직장 내 구내식당 이용률은 크게 늘고 있다. 동·북구내식당은 이달 들어 직원 이용률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퇴근 후 청사 내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업체들의 매출도 급신장하고 있다. 작은 돈으로 눈치보지 않고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동구청 내 C커피전문점은 월 평균 매출이 두 달 전보다 40% 이상 올랐으며, L패스트푸드점도 이달 들어 매출이 25% 가량 늘었다는 게 주인들의 설명이다. C커피전문점 주인은 “직장인들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올빼미 귀가족’ 늘어=열대야가 지속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야근 선호 현상까지 생겨나는 등 전에 볼 수 없던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직장인 강모씨(31)는 “집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 제시간에 퇴근해도 무더위에 더 지치기만 한다”며 “밀린 일도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한국사 지킴이 100만 대군’ 회원들이 1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길에서 수능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술자를 잡부로 취급해? 인력대기소장 흥기로 찢러

광주동부경찰, 40대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11일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일감을 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인력대기소장에게 흥기를 휘두른 강모(4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월 밤 9시경 광주시 동구 대인동 A모텔 앞길에서 인력대기소장 이모(48)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옆구리를 두 차례 찢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해머드릴 기술자인 강씨는 이씨가 평소 자신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은 일용 잡부로 일하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기술자인 나에게 절반 정도의 노임밖에 안 되는 일만 주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피아골 급류 실종 40대 7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지리산 피아골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광주일보 8월 5일 6면)이 7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10일 오전 7시20분께 구례군 토지면 지실 마을 인근 하천에서 박모(41)씨가 숨겨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 경찰 등에 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50분께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야영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아들을 대피시키고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당시 박씨의 아들(10)은 무사히 구조됐다. /구례=이진택기자 ik5826@

대낮 짧은치마 여성 뒤쫓아가 추행

○대낮에 짧은 치마를 입고 가던 여성을 보고 뒤쫓아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서 행.

○1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7)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경 광주시 동구 지산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A(여·22)씨를 보고 300m 가량 물러 뒤따라가 뒤에서 겨안은 뒤 가슴 등을 수 차례 만졌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동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도망갔는데,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김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살인 폭염’ 노인 건강관리 이렇게 ... <질병관리본부 제공>

37도를 오르내리는 열선이 지속되면서 더위를 이기지 못해 숨지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고혈압·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평소 건강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와 따로 사는 자식들은 수시로 전화를 통해 안부를 챙겨야 한다.

- ▲두통·구토·현기증·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섭취하고 땀을 닦아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 ▲만약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을 찾거나 119구급대에 신고해야 한다.
-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거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한다.
- ▲낮 12시~오후 3시에는 외출이나 논밭일·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삼가야 한다.
- ▲실내온도는 28도를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는 헐렁한 옷차림에 자외선 차단제, 넓은 모자, 물병 등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숨진 60대 동거남녀에 무슨 사연이...

주택 화재 현장 주변, 女 손 묶인채 둔기에 맞은 상처·男은 목맨채 쓰러져

고흥군 두원면에서

주택 화재 현장 주변에서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새벽 3시50분경 고흥군 두원면 김모(66)씨의 농산물유통센터 사무실에서 동거녀 최모(65)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

는 것을 119 구급대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최씨의 양손은 묶여 있었고 둔기로 인한 상처가 머리에서 발견됐다. 119 구급대원은 이날 김씨의 농산물유통센터 사무실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또 불이 난 열방에서는 김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2년

전부터 이곳에서 동거해 왔으며 최근 이별 문제를 놓고 자주 말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옷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과 최씨의 몸에서 화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최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흥=주강중기자 gju@

성적 고민 여고생 투신

지난 9일 오전 8시경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 화단 앞에 목포 모 여고 3년 P(18)양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입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P양의 교복 옷 주머니에는 “엄마한테 대들어 미안해요. 사랑해요. 동생아 엄마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전교 2~3등의 성적을 유지해온 P양은 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해왔으나 최근 치른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기대 만큼 나오지 않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1 시공 전 / 단열메이스트가시공 2 단열메이스트가시공 / 트라이슈머시공 3 트라이슈머 탈코팅 시공 4 시공 후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렌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61) 284-0485 (061) 683-0485 (061) 726-0482 (061) 795-0485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